

대구주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013.12.29.(가해) 제1870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정)대성당 _스페인 바르셀로나

† 오늘의 전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마태 2,13-15,19-23 참조)

성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집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게 됩니다. 집안에 큰 어른을 모시고 있는 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서로 삼가고 공경하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독서 집회 3,2-6,12-14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 마태 2,13-15,19-23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최창호 야고보 신부 | 황성본당 주임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해에는 더욱 복된 성가정을 이루시길 기원하며 소개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나누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굶어모으고, 움켜쥐어 봐도 별 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주지 못하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자꾸 나서 이것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하고 후회한다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나고 보니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뻑뻑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 그러한 나로 인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가 속한 가정공동체의 소중함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초대일 것입니다. 사실 가정은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뭇자리’인 동시에 삶의 ‘의미이고 보람’이며 마침내는 그 품에 안겨 삶을 마치게 되는 ‘안식처’입니다. **▶▶▶**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과 기도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는 길로서 가정은 예나 지금이나 첫째가는 길이요, 소중한 길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관습과 사조의 영향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 자극적인 유흥문화, 소비문화, 경쟁주의, 경제 제일주의 등은 오늘날의 가정의 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많은 부부 갈등,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등의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의 길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만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 시대의 유해한 환경과 영향을 정화하지 못하는 가정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어려움과 그늘을 생각할 때,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길이 외적 물질의 구비와 재물의 충족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에 마음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타자를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여기에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의 깊은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부부도 서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면, 수많은 가정의 문제를 푸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인간적 약점과 시대적 유흥의 무수한 난관 속에 놓여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마태 18,19-20)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도는 가정의 모든 생활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가정은 큰일과 작은 일,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이별과 만남, 출생과 죽음, 그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가정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한결같은 믿음의 삶과 기도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고 인생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현대의 기술문화가 줄 수 없는 것을 받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남기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병이 났을 때,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성모님과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자녀들을 격려하는지요? 가끔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로 감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은 값진 교훈이 되고 하느님께 드리는 훌륭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건설하는 일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황철수** 주교



강생(降生)의 신비

사공병도 베드로 신부 | 동촌본당 보좌

우리는 지금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기쁨들 중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강생(降生)의 기쁨이겠지요.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이 되어 내려왔다.” 이보다 큰 사랑의 고백이 없기에 우리는 오래오래 성탄을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강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3년 전 쯤, 사제로 서품을 받고 첫 본당 발령을 기다리며 3박 4일 동안 어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으로 개인 피정을 떠났습니다. 그곳 피정의 집 수녀님들의 환대로 저는 마음 편히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발령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수녀님들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시더군요. 그것은 바로 “미사”였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옳은 일이었기에 저는 흔쾌히 그 부탁을 허락했고 다음 날 새벽 수녀님들과 첫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미사 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녀님들과 미사를 봉헌한 성당은 피정의 집에 딸린 부채꼴 모양의 조그마한 경당이었는데 신자석이 네 분단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수녀님들의 고정석은 네 분단 중 오른쪽 끝 분단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텅 빈 신자석을 바라보며 췌가에 들리는 수

녀님들의 응답에 맞추어 미사를 봉헌해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날 아침에도 수녀님들은 어김없이 당신들의 자리를 고수했고, 때문에 저는 또다시 텅 빈 신자석과 마주하며 미사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사를 하며 신자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온종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미사 때, 강론을 마치고 수녀님들께 “이제부터 제가 다소 거친 행동을 해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후 제대 자체를 수녀님들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수녀님들 모두 제 거친 행동에 놀라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와 눈을 마주치며 당황스러워 했던 그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 이것이 강생(降生)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신에서 인간이 될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지 않고 그 반대가 될 때 우리도 강생의 신비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기 예수님이, 누군가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강생(降生), 이제는 우리들 차례인 것입니다. **필문**



가족이라는 기적

일 때문에 늘 바쁜 아빠 헨리와 엄마 마리아는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큰아들 루카스와 둘째 토마스, 막내 사이먼을 데리고 태국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온 가족이 휴양지에서 한창 휴가를 즐기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폭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남아를 강탈한 규모 9.1의 쓰나미〉

“루카스~” “아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마저 집어 삼킨 쓰나미는 태국 휴양지를 불과 몇 분 만에 휩쓸어 버리고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엄마~!” “루카스~” “엄마 도와줘~” 잔해 더미에 찢려 큰 부상을 입은 엄마 마리아와 가까스로 만나게 된 큰아들 루카스는 현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리아는 부상으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들로 북적이는 병원을 둘러보던 아들은 이들이 호소하는 것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공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극한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이 간

절히 그리워진 아들은 엄마마저 잃게 될까봐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병원 복도를 지나는 아빠와 닮은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 “루카스~” 마침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찾아 헤매던 아빠 헨리와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들과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 가족은 같은 시간에 한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 극한의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사실을 루카스 가족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으로 2004년 태국에서 일어난 쓰나미 생존자 가정 ‘마리아 벨론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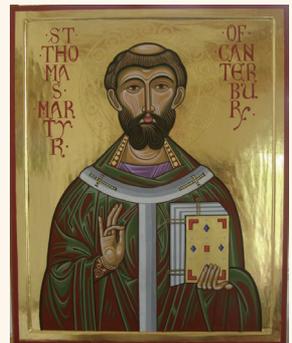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당신은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기적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작지만 가장 견고한 공동체 ‘가족’, 지금 가족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베드 4:8)

금주의 성인

성 토마스 베게트 (12월 29일)

왕권으로부터 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토마스 베게트 성인께서는 영국의 수상으로 재임하시다가 교회까지 장악하려던 왕의 야심에 의해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었다. 대주교가 되신 후 철저하게 교회법에 따라 생활하신 성인께서는 왕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프랑스로 추방되어 6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하셨는데 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시다가 왕의 추종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성인께서는 선종하신 후 3년 만에 알렉산데르 3세 교황님으로부터 순교자로 선포되시고 시성되었다.





■ '신앙의 해 기념 교리퀴즈' 시상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한 해 동안 대구주교에 연재 되었던 '신앙의 해 기념 교리퀴즈' 최다 응모자들에게 교구장 축복장을 수여하셨다.

■ 교구장 동정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_ 일시: 1. 1.(수) 11:00,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사회복지회 신년교례회 미사_ 일시: 1. 4.(토) 15: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관 다동 대강당

신앙다이어리 가톨릭 서점 판매!

신앙다이어리를 교구청 문화홍보실 외

판매처 : 계산서원, 바오로딸 서원, 성바오로서원,
삼덕성당 내 임마꼴라다 성물방, 바티카노

구 성 : 2014년 교구장 사목교서와 교구소개 /
교구 내 성지안내 / 2014년 교회 전례력 /
전례시기 해설 / 오늘의 말씀 사탕 / 주일의 말씀 / 주요기도문 / 교리상식 /
미사통상문 / 매일 성경 읽기 / 성인 축일표 / 교구 내 전화번호 안내

판매가 : 10,000원

문 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6~9

※ 신앙다이어리를 본당 성물방에 비치하여 판매하고자 하시는 본당에서는 교구 문화홍보실로 연락 주십시오.



성가정을 위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월 4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1월 4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3(금) 18:00~5(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4(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천주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환(야고보) 신부

2014년 내적여정 피정

기간: 1,8(수)~10(금) 11:00
 장소: 경남 고성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꽃동네 성소자 동계 피정

기간: 1,10(금) 17:00~12(일) 16:00
 대상: 고등부~35세 심신건강한 미혼남녀
 마감: 1,7(화) 전화접수, 참가비: 3만 원
 문의: (043)879-0283~4 / (010)5464-1265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청년 피정

기간: 1,10~12(1차) / 1,13~15(2차)

1,17~19(3차) / 1,25~26(4차)
 주제: 나를 찾아서, 장소: 강원도 홍천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회비: 3만 원
 문의: 노테레사 수녀, (010)2570-0939

교육 | 모집

14학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2(목)~15(수)
 분야: 21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전기 2차 신입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창조융합, 상담, 디자인, 신학, 사회복지, 음악, 국제다문화, 보건, 의료)
 접수기간: 1,2(목)~10(금)
 문의: 850-3637(일반)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바로로말 독서치료 행복한 책임기

일시: 1,6(매주 월)부터 14:00
 장소: 공평동 시내 바로로말 서원
 주제: 자아성장, 신앙성숙, 나를 찾아서
 회비: 10주, 12만 원
 문의: 김에반젤리나 수녀, (010)2658-5185

2014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1년과정)
 특별 과정(소양) 자격 취득 가능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육교사교육원
 850-3055 / 3366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6
 문의: (02)741-3071 / (010)9333-4532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3월 입주, 총 264세대 1,000병상
 국제성모병원, 매일미사, 요양원 운영,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대상: 만15~26세 남, 1년
 (기계가공조립과정, 00명)
 내용: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특징: 교육비·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검반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면접전형
 문의: 살레시오회, (02)828-3600

대구축협가맹점 대현점
 1등급이상만 취급하는 대구축협 대현가맹점
 대구시내 전지역 전화주문 및 무료배달!!(5만원 이상)
 북구 대현동 휴먼시아2 상가 대현동사무소옆
 ☎ 053)955-2846
 대현점 서 화 교(요아킴)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80-118-1004
 김택기(안토니오) 011-503-2404

제15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특징
 ● 주중(월-금)은 어학연수, 주말(토, 일)에는 봉사활동 진행
 ● 해외봉사 실적인증서(학점인정가능) 및 어학연수 인증서 발급
 ● 인솔자 동행 및 캐니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2차 2월 27일 출발 / 3차 3월 29일 출발
 T. 053)593-1273
 (재)대구가톨릭학생회

KE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이조맛김
 김·건어물·젓갈류 판매
 생선안배기름 마면 및 비치리 생모찌, 저모찌 등 각종 단체 기증가능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본사 : (041) 641-3838 대구지사 : (053) 255-3836
 농림 | 351-0054-3404-831 | 예금주 이경숙
 한기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유방 감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마리아유외과
 Maria Breast Clinic
 반월당네거리 동협 3층
 T.053)252-6875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인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과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010-8345-9479
 이주석 (요셉)

새로운 생명을 여는 신자가정을 위한 종합 월간지 '빛'
 월간 '빛'은 다양한 모임과 선교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053)252-5392

행사 | 모임

성모님 찬송과 함께하는 성모신심 미사

일시: 1.4(새해 첫 토요일) 10:00~12:00
장소: 상인성당(유명 성악인 15명 초청)

23회 성 이윤일 요한제 초대

9일 기도미사: 1.12(일)~20(월)
매일 15:00 (단, 토 17:00)
순교기념미사: 1.21(화) 17:00
주제: 선교의 꿈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교육 | 모집

2014 학생 후보 기자단 모집

입단시험: 1.12(일)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대상: 무지개 초4~6학년 진급생
새하늘 새땅 중1~고2학년 진급생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6

YHY 해외봉사활동단 모집

기간: 2.20(목)~28(금)
장소: 필리핀 마닐라
대상: 중·고등학생 (선착순 8명)
경비: 약 170만 원 / 마감: 1.3(금)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제6기 성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기간: 1.7(화)~11(토)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 1.11(토) 14:00
대상: 중학교 과정(학력인증 대안학교)
문의: (054)337-0530 / 338-0530

겨자씨성서모임 수강생 모집

구약반: 수 10:00, 오후 20:00
신약반: 화 10:00, 월 20:00
연구과: 화 10:00, 수 20:00
문의: 625-4627 / (010)6520-4627

가톨릭근로자회관 1월 영아성장공부반 모집

개강: 1.7(화) 월 3만 원
낮반: 창세기, 마태오(화, 금 10:30)
저녁: 창세기, 사도행전(화, 목 19:0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목 10:00) 시편 강의 중

2014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일시: 1.18(토) 14:00
장소: 월배성당 뒤 프란치스코눔
서류: 지원서
문의: (010)3440-0304

2014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과정) 모집

토요반: 2.15~3.15 14:00~17:00(4회)
일요반: 2.17~3.10 14:00~17:00(4회)
대상: 전신자
참가비: 1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255-7222

프란치스코눔에서의 행복 상담

개인·집단 상담(학습·진로, 가족, 부부)

내용: 상담 및 심리치료, 부모교육
장소: 프란치스코눔내 상담실
문의: (010)4436-7622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2014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과정
접수: 1.2(목)~3.21(금)
교육기간: 4.1(화)~6.27(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교육비: 50만 원, 문의: 255-7222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지원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서류마감: 1.7(화)까지
문의: 859-4063~4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노재환, 윤춘선(지파)
문의: 253-9550

2014년 교구 신앙 다이어리 판매

판매처: 계산서원, 바오로딸서원,
삼덕성당 임마꼴라파성물방,
성바오로서원, 바티카노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6~9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과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수맥흡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곽연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협사/원장 신재훈(무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교수출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협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053) 260-7777 ☎(053) 260-7575
서류정류장 관문시장역(구달성군청지리)

시브마린리조트
170명 연회장(대, 중, 소 연회장 완비)
객실 68개 취사, 복층구조(중, 중, 고 수련회 환영)
해수사우나, 노래방, 스크린골프,
한, 일식당, 커피숍, 편의점 완비
www.submarineresort.co.kr
예약문의 ☎(054)293-1200 나중기(요아킵)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

어혈치료(금진옥액 요법)
서문한의원
• 중풍예방 • 편두통
• 무릎, 어깨관절통 • 화병
• 간해독 및 장청소
원장 김 형 철(무카)
월~금 야간진료(저녁9시까지)
☎ 053)572-8721~2

자격증 취득 전문 학원
북구음식나라조리학원
한식조리사기능사반 북어조리기능사반
양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재직자반
일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계좌제반
중식조리사기능사반 출장조리반
053)958-7500 / 010-3817-6895
대구시 북구 대현동 270-7 삼주빌딩 3층
대표 프란치스코(서정발), 아베스(김복순)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 IC 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삼바로) 958-0009